

올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 성과 공유

전북자치도교육청, 성과발표회 개최... 전북형 국제화교육 모델 제시·국제교류수업 일반화 기여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국제교류수업 학교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2층 강당 및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제교류수업 운영 성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학교급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형 국제화교육 모델 제시 및 국제교류수업 일반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행사는 올해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운영한 61개교(초 17·중 20·고 24) 학생과 학부모, 교원, 2025년 사업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성과 전시, 성과 공유, 운영 사례 나눔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2층 강당에는 학교별 국제교류 활동 결과물과 영상, 사진, 워크북, 컬처박스 등 학생들의 활동 기록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창조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는 학생들이 국제교류수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이야기를 발표하고, 각 학교의 운영 사례를 나눴다.

스웨덴과 교류한 장승초, 독일과 교류한 전주근영중, 영국과 교류한 이리여고, 호주와 교류한 전주사대부고 학생들이 소감 발표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기 다른 국가와 교류하며 얻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육청 2층 강당 및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학생들의 경험과 성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장승초 신서인 학생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짧게 느껴졌던 국제교류수업이었다. 잊지 못할 값진 경험을 한 것 같고 스웨덴 학교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친해져서 너무 신기하고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좋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국제교류수업은 학생들이 세계와 소통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우

리 학생들이 더욱 큰 꿈을 품고 국제적 감각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국제교류수업 학교를 70여 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함께라서 행복해요'

전북자치도교육청, 올 교육가족 공모 수상작 발표 총 72편... 춘포초 정경희 교사, 사진분야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 '2024 교육가족 공모전' 수상작 72편을 선정·발표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주제로 진행한 교육가족 공모전에는 총 690편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동시 529편 △소품 학생분야 52편/ 교직원분야 28편 △사진분야 81편 등 총 690편이며, 그중 심사를 통해 72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각 분야 대상은 △동시 '리코더 연습'(군산월명초 이윤서) △소품 영상 학생분야 '김기수레인지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홍보 영상'(전주여고 홍수지) △소품영상 교직원분야 '넘어져도 괜찮아'(군산명화학교 안보배 교사) △사진분야 '함께라서 행복해요'(춘포초 정경희 교사)가 차지했다.

이 밖에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전북교육청 누리집(www.jbe.go.kr)



춘포초 정경희 교사작 '함께라서 행복해요'

또는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오는 6일 개최된다.

오재승 대변인은 "교육가족 공모전은 교육가족이 직접 참여하고 교육주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학교 현장 사례, 교육주체의 교육활동보호 실천 모습, 모두가 행복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육주체의 노력을 담아내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주체들이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늘봄학교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제공

전북자치도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와 협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서거석 교육감)이 늘봄학교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제공 및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공무원연금공단과 손을 맞잡았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6층 위원회실에서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조영철 지부장)와 '늘봄학교 활성화 지원 및 교육분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공무원의 사회공헌인 늘봄학교의 인력 지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협력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늘봄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퇴직공무원 인력풀 구축 및 지속적인 참여 △퇴직공무원 교육 및 홍보 등 정보 공유 △정기 협의를 통한 협력 관계 강화 및 추가적인 협력 분야 공유 등이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집중 지원 대상자가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



이 제공된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이 확보한 지역의 우수한 인력을 늘봄학교에 유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내실 있는 늘봄학교 운영이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지역의 퇴직 공무원분들을 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늘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늘봄학교 안착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협약기관 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RISE 체계, 지역 문제 해결·세계적 경쟁력 갖출 절호의 기회"

전북대 김현영 RISE 위원장 특강 통해 대학의 역할 모색

김 위원장 "지역소멸 등 위기 해소할 혁신모델 만들어가길"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이하 RISE) 도입에 따라 지역대학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김현영 라이즈(RISE)위원장 초청 특강 시간을 가졌다.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전환과 대학 혁신"을 주제로 한 이번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RISE 체계는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라고 정의하고, 지식·기술과 인적자본의 주요한 저장소인 대학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발전을 견인할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학은 이제 단순한

교육과 연구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며 "RISE 체계가 그 변화를 촉진할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강에서는 RISE 체계가 대학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측면에서 요구하는 변화와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을 설계함으로써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미국 ASU와 MIT의 오픈러닝 교육혁신, 일본 아키타국 제대학의 지역 연계 수업, 강원대의 미래융합가상학과 등 국내외의 혁신 모델을 제시하며, 대학이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



을 갖춘 연구와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RISE 추진체계와 재정지원 프로세스, 지역별 예산배분안, 중앙부처와 지역 간 협력적 성과관리 체계 구축, 범부처 연계 가능 사업 등을 소개했고, RISE 체계와 연계하여 혁신 플랫폼 중심대학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대학30 프로젝트와의 연계 등을 통한 시너지도 제시했다.

김현영 위원장은 특강을 마치며 "RISE 체계는 지역 대학이 지역의 문

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지산학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지방대학 소멸의 위기를 해소하는 혁신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특강 참석자는 "오늘 특강을 통해 RISE체계의 핵심이 대학의 역할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우리 전북대학교는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된 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반도체와 부품소재, K-방산 등 지역산업과 밀접한 인재양성 시스템으로 대학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라며 "이번 이 시간을 통해 전북대 가족들이 RISE 정책의 본질과 추진 방향을 이해하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과학교육원, 상설 전시체험

'컴퓨터 세상' 이달부터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 원장 조현정)은 작지만 큰 컴퓨터 속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체험 '컴퓨터 세상'을 12월부터 운영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상설 전시는 어린이들이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 컴퓨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놀이를 통해 디지털 세계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서울상상나라의 전시 체험물 8종 및 포토존을 기획했다.

조현정 원장은 "이번 전시는 도내 어린이들에게 컴퓨터와 디지털 세상을 주제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교육원은 앞으로도 최신 과학 발전 동향을 반영한 전시체함과 재구조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과학적 역량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전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제10회 미래전북포럼 개최

2024년 하우와우미래캡 1기 워크숍과 연계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제10회 미래전북포럼을 2024년 하우와우미래캡 1기 워크숍과 연계해 전주대학교 온누리홀에서 지난달 28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우와우미래캡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우리가 미래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지난 8월 27일 출범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산·학 협력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1부에서는 멘토와 멘티들이 활발히 교류하며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했으며,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김연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등 지산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빛냈다.

2부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에너지·모빌리티 분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전북분원 안석훈 책임연구원이 '정부출연 연구소



에서의 연구자', 바이오·농생명분야 주식회사 어울림 농업회사법인 김민석 대표이사가 '푸드테크와 K-푸드 수출', ICT·컬처·창업분야 주식회사 모모파트너즈 김경호 대표이사가 '창업과 가치창출'이라는 주제의 공개 강연을 진행했다.

3부에서는 12월 23일 최종성과보고회에서 발표할 2024년 하우와우미래캡 1기 우수 멘티 선별을 위한 멘토-멘티 특별 토론회 및 네트워킹 만찬을 진행했다.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멘토-멘티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 멘티 여러분께서 멘토로부터 배운 유익한 경험·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는 청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전북테크노파크는 미래산업을 선도할 전북 청년들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연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훌륭한 스승과 친구가 있다면 배움에도 지름길이 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청년들을 최선으로 다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하겠다"고 전했다.

하우와우미래캡 이해원 사업단장(전주대학교 산학부총장)은 "멘티 역량 개발을 위한 멘토링, 기관 현장 탐방, 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배우고 협력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 캠프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이 앞으로의 진로와 삶에 큰 자산이 되기를 바라며, 하우와우미래캡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장기 프로그램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하우와우미래캡은 기업 대표, 연구원, 교수, 공공기관 임원 등 45명의 멘토와 전주대,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를 비롯한 도내 주요 대학 3학년 이상 학생 100명의 멘티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특화분야 멘토-멘티 매칭을 통한 지역미래(청년)세대 육성 프로그램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소통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달 29일 그랜드힐스톤에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소통 연수를 개최했다.

서거석 교육감, 진형석 교육위원장과 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원진,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 전북학부회 협의회 정유미 회장, 전북학생의회 오현서 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연수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이

해, 발전 방안 등 학교운영위원장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이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의 달린 내용에 대한 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감상, 전북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우석대, '산·학·연 교류 세미나'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2024 산·학·연 교류 세미나'를 진행했다.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북테크노파크 지역혁신클러스터추진단이 공동 주최하고, 우석대학교 취업 연계형 식품특성화사업단과 전북지역혁신클러스터 R&D사업단이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석용 취업 연계형 식품특성화사업

단 총괄 책임교수는 "지역의 농생명 식품 혁신기업과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산·학·연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염재복 기자